

뉴질랜드의 목양산업(3)

6. 메리노

1834년 뉴질랜드에 메리노 양이 처음 소개되었고, 남섬의 산악부에서 사육되고 있다. 1900년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롬이나 보더 레스터 같은 다목적 양에 의하여 밀려났다. 호주의 메리노처럼 둥그렇게 휘어진 뿔이 있고, 백색 얼굴에 머리카나 다리에도 털이 나 있다. 목둘레에는 주름이 잡혀 있고, 플리스는 조밀하고, 탄력이 있다. 양모의 굵기는 18 ~ 24 μm , 길이는 65 ~ 100 mm, 채모량은 3.5 ~ 5 kg, 용도는 소모직물, 니트웨어 등 고급 양모 제품에 사용된다.

7. 보더데일(Borderdale)

보더 레스터와 코리데일의 교배로 얻어진 양종이다. 1930년대에 개발되었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 다시 동종 교배를 반복하여 혈통을 강화시킨 것이다. 남섬의 건조지대에서 주로 사육되고 있으며, 양모의 굵기는 30 ~ 35 μm , 길이는 100 ~ 150 mm, 상당한 광택이 있다. 채모량은 4.5 ~ 6 kg이며, 출산율도 110 ~ 130 %로 상당히 높다. 주 용도는 수편모사와 두꺼운 방모직물용이다.

8. 드라이스데일(Drysdale)

1930년대에서 부터 1940년대에 걸쳐서 메시 대학(Massey Univ.)의 프란시스 드라이(Dr. Francis W. Dry)교수에 의해, 특이한 모수(毛髓)를 갖고 있는 롬니종 중 어떤 특별한 타입의 양을 계속하여 교배시켜 1950년대에 고정시킨 양으로 드라이 교수의 이름을 따서 드라이스데일이란 이름을 붙였다.

양모의 굵기가 40 μm 이상으로 굵어서 카펫 전용 양모로 사용되고 있다. 양모의 길이는

200 ~ 300 mm나 되며, 한 마리당 채모량은 5 ~ 7 kg으로 뉴질랜드 양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양이 채모된다. 출산율은 90 ~ 120 %이다. 고급 카펫 양모가 생산되는 바람에 공업용으로 영국에서 수입하여 오던 스코티시 블랙페이스(scottish Blackface) 양모의 수입품으로 대체되었다.

뉴질랜드에는 여러 가지 양종이 있으나, 양모생산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즉 살아 있는 양에서 깎아낸 양모(shorn wool)와 고기용으로 도살하고 난 다음에 새끼 양이나 어미 양에서 양모를 뽑아낸 양모(slipe wool)의 두 가지다.

9. 크로스브레드(Crossbred, X-bred))

뉴질랜드산 양모의 대부분은 순혈종이 아닌 여러 가지 영국종과의 교배종 양모를 말한다. 정식으로 세계의 양종을 구분할 때 메리노종과 카펫용 울을 제외한 모든 것을 크로스 브레드라고 하는 경우와 메리노종, 영국종 그리고 몇 가지 순종 양을 제외한 모든 양종을 크로스브레드종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메리노나 하프브레드보다도 굵은 양모를 갖는 양종을 크로스브레드라고 한다. 대개 양모의 굵기는 33 ~ 40 μm 정도가 된다. 양모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뉴질랜드 양모의 분류

구분	Main body wool	Oddments(잔여물)	
Shorn wool	Fleece wool	Skirting	Crutching
	Merino	Necks	
	Halfbred	Pieces	
	X-bred	Bellis	
	Early shorn	2 nd Pieces 및 Locks	
	2 nd Shear wool	Closing Oddments	
	1 st Lamb	2 nd Lamb	
Slipe wool	1 st Slipe	2 nd Slipe	3 rd Slipe

위 표에서 열거된 몇 가지 양모 용어를 추가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하프브레드(Harfbred, 1/2-bred)

크로스브레드 양의 교배종 양모로 굵기는 대개 25 ~ 31 μm 이다.

(2) 얼리 손(Early shorn)과 세컨드 시어(2nd shear)

봄, 가을 2회 양모를 깎는 양모다.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방모나 반 소모(semi-worsted)용으로 사용되는 양모다. 길이가 75 mm이하로 너무 짧아지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에 3회 깎기도 한다. 이것을 얼리 손 울이라 한다.

(3) 램스 울(Lambs wool)

새끼양의 털 깎이는 생후 3 ~ 6개월 사이에 시행하는데, 새끼 양에서 깎아낸 양모가 퍼스트 램(1st lamb)이다. 양모의 굵기는 28 ~ 31 μm 이며, 길이는 50 mm 이하. 이후 두 번째 깎는 램스 울을 스커팅 램이라고 한다. 양모의 굵기는 퍼스트 램 보다 다소 굵다.

(4) 크러칭(Crutching)

회음부나 꼬리 부분의 양모를 깎는 것을 크러칭이라 하고, 이렇게 깎아낸 양모를 크러칭스(crutchings)라 한다. 굵고 헤어리(hairy)하며, 탄력성이 좋아 카펫용으로 사용된다.

(5) 스커팅(Skirting)

털을 깎아 플리스(fleece)를 만드는데, 주변의 등급이 떨어지는 부분의 양모 즉 배꼽 부위, 목 부위(necks), 피시스(pieces)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스커팅이라 하고, 스커트된 양모를 스커티드 울(skirted wool)이라고 한다. 이 양모는 길이가 짧고 백도도 낮다. 이 양모의 용도는 생산 원가를 줄이려는 혼방용이다. 스커트 대상 중 넥스가 3 %, 피시스

가 9 %, 베리스가 7 %를 차지한다.

(6) 슬라이프(Slipes)

슬라이프 양모를 영국에서는 세모(wash)를 하였건 하지 않았건 도살된 양가죽에서 석회법으로 뽑아낸 양모를 슬라이프 양모(slipes wool)라 한다. 호주에서는 죽은 양의 가죽에서 세모하지 않고 뽑아낸 양모를 말하며, 뉴질랜드에서는 발모공정 전에 세모하고, 발모 후에 세척(scour)하지 않은 것을 슬라이프 양모라고 한다. 슬라이프 양모도 1st, 2nd, 3rd 외에 크러칭 타입의 브리치(britch)와 슬라이프 마스터(slipes master)로 구분하며, 또한 양모의 굵기에 따라 여러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 (공석봉)